

축사



정세균

대한민국 국무총리

[새로운 세상에서 언론의 역할은 진실에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세계기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기자대회는 9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민간외교의 모범사례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있는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기자협회 관계자 여러분과 김동훈 협회장님,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 가장 아픈 방식으로 세계 곳곳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도 빨라졌고, 변화의 폭도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이 집약된 이슈가 바로 기후 문제입니다. 기후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경을 넘어, 지구촌 모든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모색하는 이번 대회가 참으로 의미 있고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언론인 여러분,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며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나아가 진실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욕망도 깊어져, 저널리즘의 가치가 더욱 소중해지는 세상입니다.

축사

저는 새로운 세상에서 언론의 역할은 바로 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되게 소통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비출 때, 비로소 거울과 창으로서 언론의 역할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세계 언론인 여러분께서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우리 정부도 국민과 더 가까이, 그리고 더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기자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가 언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